

왕궁 지키던 수문장, 전주다움으로

경기전 수문장 교대의식 20일부터 10월까지 열려

오는 20일부터 10월 12일까지 매주 토요일 경기전 및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는 '경기전 수문장 교대의식'이 열린다.

올해로 3년째를 맞은 '경기전 수문장 교대의식'은 전주시(시장 김승수)가 주최하고 전문예술법인 전문문화마을(대표 김진형) 주관하는 행사로 그 동안 전주한옥마을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콘텐츠로 주목을 받아 왔다.

조선시대 왕궁을 지키던 수문장 제도를 전주다움으로 새롭게 구성해 선보이는 '경기전 수문장 교대의식'은 전주소리문화관과 경기전을 이어가는

'수문군 순라행렬'과, 경기전 정문에서 진행되는 '수문장 근무·교대의식'으로 구성된다.

올해는 교대의식 전후에 수문장과 종사관이 경기전 정문을 지키는 '수문장 근무의식'을 더해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경기전 수문군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연장했다.

토요일 오후 2시가 되면 경기전 정문에서는 당시 교대군이 근무의식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주소리문화관에서 순라행렬 준비를 마친 취태대와 기수대, 총이군이 전주소리문화관 대문 앞에 도열하고 있다가 함찬 구령과 함께 경기전 정문으로 향한다.

수문군들의 행렬은 한지길에서 태조로까지 이어진다. 취태대의 신명나는 연주도 빼놓을 수 없는 관람 포인트이

다. 같은 시각, 당시 수문군과 관리들이 경기전 정문을 지키고 있다. 교대수문군의 순라행렬이 도착하면 본격적인 수문장 교대의식이 시작된다.

초엄, 이엄, 삼엄을 알리는 각각의 북소리에 맞춰 군호응대, 약시함 확인, 부신부함의식, 교대배치의식 등이 차례로 이어지면서 격조 높은 퍼포먼스로 관람객들의 오감을 사로잡을 것이다. 관람객과 함께 하는 포토타임으로 전주와 경기전 수문장 교대의식에 대한 깊은 추억을 남기는 시간도 마련된다.

한편 포토타임 후 경기전에서 태조로, 은행로를 따라 전주소리문화관까지 이어지는 순라행렬도 전주한옥마을에서만 만날 수 있는 귀한 풍경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장은성기자



“4차 산업혁명 교육방법 지원합니다”

전북대, 공학기술 확산 위해 공학교사 연수 마련... 교육비 전액 무료

전북대학교 청소년 창의기술인재센터가 오는 5월 31일부터 1박 2일 캠프 진행될 2019 공학교사 아카데미와, 8월 1일부터 3일 동안(21시간) 진행될 2019 공학교사 직무연수에 참여할 호남·제주권 기술 및 공학교사들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학교사 아카데미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새로운 이슈와 교육방법을 지원하고 기업이 정신 및 최신 공학기술 확산을 통한 학생 간접교육을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전북대는 이번 아카데미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트렌드와 문화·ICT기술 융합사례를 통한 기업가정신,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팀빌딩, 아이디어 발표 및 평가, 도내우수기업 견학 등을 통해 전문 교육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블로그에 첨부된 파일의 양식에 따라 신청서 작성 후 스캔하여 E-mail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대 청소년 창

의기술인재센터 블로그(<https://blog.naver.com/tstarjnu>)를 참조하거나 센터 담당자(063-270-3695)에게 문의하면 된다.

이종열 청소년창의기술인재센터장은 “최근의 교육 패러다임이 반영된 기업가정신교육을 통해 교사들의 직무역량이 강화되고, 융합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융합기술 발달에 따른 교사들의 적응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는 2011년부터 매년 공학 기술 개발에 동반되는 기술 경영 및 최신 공학기술 트렌드를 소개하고, 주요 연구시설 및 기업을 탐방하는 주제로 공학교사아카데미를 개최, 권역 내 정보와 과학, 기술 분야 교사진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아왔다.

또한 센터에서는 2016년부터 전라북도교육청 특수 분야 연수기관으로 선정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ICT, IoT, 빅데이터 활용 교육과정을 직무연수로 개설, 하계방학 3일 동안(21시간) 운영해 왔다.

/장은성 기자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이운애)는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지원으로 탄소산업제조인력양성 직업교육훈련을 운영하고 있다.

직업교육훈련은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전문 및 직업교육을 운영하는 것으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바람직하다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 및 취업준비를 위한 맞춤형 고용대책의 일환이다.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지난 15일 '탄소산업제조인력양성교육' 직업교육훈련생들의 효율적인 취업방안을 논의하고자 일자리 협력망 회의를 개최했다.

탄소산업제조인력 양성과정은 기업 맞춤형 직업교육훈련으로 관련분야의 충분한 지식을 바탕으로 현장교육을 통한 실무능력 배양과 함께, 직업인으로서 갖춰야 할 직업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직무소양교육을 함께 진행함으로써 현장에 즉시 투입되어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관련 직종의 취업처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빙그레정밀항공, 유니레즈(주), 전북대학교 링크사업단 등 관련 업체 대표와 인사담당자 등이 참석하여 취업 연계 방안에 대한 심층토의가 이뤄졌다. 이를 통해 관련기업 취업처 확보방안에 대한 논의와 네트워킹 형성을 통한 취업지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취업지원팀(063-254-3603)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난 13일 어린이를 대상으로 요리 체험 활동 '레인보우 브릿징'을 진행했다.

‘만지고 맛보는 오감 발달 어린이 성장 교육’

전주대한식조리학과, 지역 어린이와 함께하는 요리 체험 활동 진행

전주시 완산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차경희)에서는 지난 13일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를 대상으로 요리 체험 활동, '레인보우 브릿징(Rainbow-bridging)'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레인보우 브릿징'은 '지역사회와 사람과 섬김을 나누는 다리'를 상징화 한 것으로, 요리 체험 활동의 프로그램 명칭이자 이곳에 참여하는 전주대 한식조리학과 봉사 동아리 이름이다.

전주대 '레인보우 브릿징'은 한식조리학과 학생들이 재능기부로 지

역사회 어린이와 함께 요리 체험활동을 진행하고 어린이의 편식 개선과 정서 발달, 창의성 증진을 돕고 있다. 이번에도 12명의 대학생이 참여하여 30여 명의 어린이와 함께 '에그 마요 & 햄치즈 샌드위치'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 어린이들은 계란을 으개고 반죽을 치대며 재미를 느끼고, 샌드위치 안에 들어있는 오이, 상추, 토마토 등 평소 잘 먹지 않는 음식들의 식감을 배우고 친숙함을 느낄 수 있게 했다.

차경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전주대 한식조리학과 교수)은

"레인보우 브릿징의 요리 체험은 맛과 만지고, 맛보는 등 어린이의 오감을 발달시킬 수 있는 최고의 놀이이자 교육이다"며, "어린이의 성장에 도움 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 완산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올해 말까지 '레인보우 브릿징'과 연계하여 매일 둘째 주 토요일마다 다양한 주제로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요리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형 자유학기제 내실 다지기 '총력'

도교육청서 업무담당자 회의 개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15일 2층 강당에서 전북형 자유학기제 운영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담당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유학기제란 중학교에서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지식·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의 자아이해 및 탐색, 소질과 적성, 삶의 가치관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이 가능한 유연한 교육과정을 편성하며, 학생 참여형 수업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도내

중학교는 총 209교다.

이번 회의는 2019년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운영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자유학기 활동 교육과정을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유학기제 자체 점검과 컨설팅 운영 방안을 나누고, 전북형 자유학기제 내실화를 위한 토대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자유학기제 운영 과정의 애로사항과 해결방안에 대해 권상철 교사(지사중학교)가 강사로 나서 '2019 전북형 자유학기(년)제 운영 Q&A'를 진행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명예퇴직 시행 공고... 내달 1일부터 접수

전북도교육청이 2019년도 2분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공고안에 따르면 2분기 명예퇴직 신청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10일까지로, 명예퇴직 예정일은 6월 30일이다. 신청자격은 명예퇴직일 현재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한다. 다만 정계 의결이 요구돼 있거나 징계처분이 요구된 사람,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인 사람 등은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된다.

명예퇴직 신청 희망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명예퇴직원, 명예퇴직자 요건심사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은 후 교육감에게 제출하면 된다. 특히 유치원·초중학교는 관할교육장을 경유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자를 결정할 예정이며, 명예퇴직 제외대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결정이 취소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교육청 총무과(063-239-3491)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고싶은 학교 + 행복한 교육 공동체

전라북도교육청

4월, 어제가 오늘에게 보낸 편지

1919431

독립의 염원으로 대한민국을 세운 날

임시정부 수립

1960419

민중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바로 잡은 날

419 혁명

자유정의 진리

194843

제주섬이 피땀으로

1948.4.3

2014416

제물포 참사

제물포 어린이들이 변신이 되어 떠난 날

모든 날의 목격자가 되어 주세요. 기억을 끝없이 소환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요.

always remember...